

《老子》 어기사 ‘兮’ 고찰

— 출토문헌과 전래문헌 5종 판본 비교를 중심으로 —

曹銀晶*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老子》 판본 소개
 - III. 통행본 《老子》 ‘兮’의 판본별 사용 현황
 - 1. 郭店簡 《老子》에서의 현황
 - 2. 北大簡 《老子》에서의 현황
 - 3. 帛書乙 《老子》에서의 현황
 - 4. 敦煌本 《老子》에서의 현황
 - 5. 소결
 - IV. 《老子》 판본별 相異한 文字 사용에 대한 고찰
 - V. ‘兮’類 어기사와 ‘乎’類 어기사의 판본별 용법
 - 1. ‘兮’類 어기사의 《老子》 판본별 용법
 - 2. ‘乎’類 어기사의 《老子》 판본별 용법
 - 3. ‘乎’類 어기사가 ‘兮’類로 바뀐 용례 및 그 특징
 - VI. 나오며
-

I. 들어가며

고대 중국어를 연구할 때 판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좀 더 유의미한 언어학적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판본에 나타나는 글자나 용법의 차이를 통해 구문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어 품사들의 언어학적인 발전 과정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가 《論語》의 언어를 연구할 때 《十三經注疏》에 실린 阮元本을 채택해서 사용하면서 큰 의심 없이 원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한다면 정확한 연구결과를

* 성균관대학교 중문과 강사

도출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阮元本 《論語》가 宋十行本을 底本으로 삼고 있는데다 唐 이후에 재정리된 판본이기 때문에 선진시기 언어를 원형 그대로 오롯이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찍이 《論語》 판본 비교를 통해 ‘也已矣’ 連用 현상이 唐 이후의 판본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언어학적인 각도로 풀이한 적이 있다.¹⁾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老子》의 각기 다른 판본 중 ‘兮’자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한 바²⁾ 東漢 이후의 《老子》 판본에 ‘兮’라 쓰인 부분이 그 이전의 판본에서는 ‘呵’와 ‘旖’, 심지어 ‘摩’ 등으로 쓰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자는 우선 통행본 《老子》에서 ‘兮’로 쓰인 부분들이 그 이전 판본들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시기별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 분석을 위해 문자학적이고 언어학적인 각도로, 본 현상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각 판본에서 사용되는 글자가 왜 상이한지에 대해 그 배경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정식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老子》 판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II. 《老子》 판본 소개³⁾

현존 《老子》 판본은 크게 출토문헌과 전래문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출토문헌으로는 戰國 中後期の 竹簡 필사본인 郭店簡, 秦末-漢初 필사본인 帛書本, 唐 필사본인 敦煌本이 있으며 최근 정리되어 출판된 것으로 西漢 필사본인 北大簡이 있

- 1)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曹銀晶 〈談《論語》中的“也已矣”連用現象〉(《中國語言學集刊》第6卷 第2期, 2012) 참조.
- 2) 《老子》 판본 비교를 통한 원문 대조 연구로는 劉笑敢《老子古今》(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徐富昌《簡帛典籍異文側探》(臺北, 國家出版社, 2006) 등이 있으며 가장 최근의 원문 대조 자료는 《北京大學藏西漢竹簡(貳)》(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에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위 자료들 모두 敦煌本을 수록하지 않았으며 두 학자 모두 언어학적인 각도로 연구하지는 않았다.
- 3) 《老子》 판본 소개 부분은 필자의 박사논문(曹銀晶 《“也”“矣”“已”的功能及其演變》北京,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12)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 후 한국어로 풀이한 것이다.

다. 전래문헌으로는 王弼本, 河上公本, 傅奕本, 嚴遵本 등 외에도 수많은 注疏本, 校勘本 등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 중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王弼本을 통행본으로 삼아 비교 대조를 진행할 것이다.

참고로 본고에서는 출토문헌의 예문을 인용할 경우 서술의 편의를 위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豫定된 글자체가 아닌 여러 학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考釋된 글자를 사용하기로 함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손상이 심각하여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거나 글자가 훼손된 경우에는 ‘□’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다른 판본을 근거로 보충 가능한 경우에는 ‘〔 〕’를 이용하여 원문 내용을 보충토록 하겠다.

1. 출토문헌

1) 郭店簡

郭店簡은 1993년 湖北省 荊門市 郭店 지역의 楚墓에서 발견된 竹簡 필사본이다.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郭店簡 《老子》는 《郭店楚墓竹簡》(荊門市博物館 編, 北京, 文物出版社, 1998)에 수록된 竹簡 원문에 대한 현재까지의 考釋 관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한 내용이다. 郭店簡 《老子》는 篇幅이나 구조, 章數, 배열 순서, 문자 사용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帛書本이나 통행본과는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郭店楚墓竹簡》에서는 竹簡의 형태나 길이에 따라 郭店簡을 甲乙丙 3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데(각각 老子甲, 老子乙, 老子丙로 약칭) 그 筆寫 年代에 대해서는 기원전 4세기 중엽부터 3세기 초엽 사이, 즉 戰國 中後기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帛書本

帛書本은 1973년 湖北省 長沙市의 馬王堆 3號 漢墓에서 출토된 帛書 필사본이다. 帛書本 《老子》는 帛書甲과 帛書乙 두 종류로 나뉘며 본고에서는 《帛書老子校注》(高明, 北京, 中華書局, 1996)에 수록된 원문을 사용하였다. 帛書本에는 통행본 《老子》처럼 81章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 등 그 체례나 내용이 완전한 편이다. 帛書本과 통행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행본은 道經이 제1장부터,

德經이 제38장부터 시작된다면 帛書本은 德經이 道經에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帛書甲은 帛書乙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즉 甲本의 경우 서체가 篆書와 隸書의 중간 단계에 속해 있으며 漢 高祖인 劉邦의 ‘邦’자를 避諱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漢 高帝 시기나 그 이전의 것(秦末-漢初)으로 보고 있으며 乙本의 경우 서체가 隸書에 속하며 劉邦의 ‘邦’자는 避諱하여 ‘國’자로 고쳤지만 漢 惠帝의 이름인 ‘盈’자와 文帝의 이름인 ‘恒’자는 避諱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漢 文帝 시기나 그 이전의 필사본으로 보고 있다.

帛書甲과 帛書乙은 일부 글자가 상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용, 체례, 순서가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帛書의 손상 등으로 일부 완전하지 못한 예문들이 존재하는데 帛書甲의 손상 정도가 더 심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帛書本을 논할 때 帛書乙을 기준으로 삼되 필요할 경우 帛書甲을 근거로 그 내용을 보충토록 하겠다.

3) 北大簡

北大簡은 중국 북경대학에서 출판된 《北京大學藏西漢竹書(貳)》(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에 수록된 竹簡 원문을 일컫는다. 이는 帛書甲乙本과 郭店簡에 이어 세 번째로 발견된 東漢 이전의 《老子》 관련 출토문헌이다. 北大簡 《老子》 역시 德經이 道經에 우선하는 등 帛書本과 그 체례가 같다. 北大簡의 筆寫 年代에 대해 韓巍는 그 서체가 성숙한 隸書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漢 景帝 이후 武帝 前期에 속하는 필사본이라 판단하였다.⁴⁾ 그러나 필자는 北大簡과 帛書乙은 같은 시기의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避諱 현상을 놓고 보면 北大簡도 帛書乙처럼 漢 高帝인 劉邦의 ‘邦’은 避諱하고 있지만 그 후대 황제인 惠帝의 ‘盈’, 文帝의 ‘恒’, 景帝의 ‘啓’, 武帝의 ‘徹’은 避諱하지 않고 있다. 둘째, 서체를 놓고 보았을 때 北大簡과 帛書乙 모두 隸書, 즉 漢隸로 쓰여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北大簡과 帛書乙을 동일한 시기인 西漢 시기의 필사본으로 놓고 논의를 진행코자 한다.

4) 韓巍 〈西漢竹簡《老子》의文本特徵和學術價值〉(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編 《北京大學藏西漢竹簡(貳)》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208-209쪽 참조.

4) 敦煌本

敦煌本은 20세기 초 敦煌 莫高窟 藏經洞에서 발견된 唐 필사본 《老子》를 일컫는다. 본고에서는 《敦煌寶藏》(黃永武 主編,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3-1986)에 수록된 필사본 사진 원문을 재정리하여 사용하였다. 《敦煌寶藏》에 수록된 《老子》는 원문만 수록된 필사본 말고도 河上公章句, 想爾注, 成玄英義疏, 李榮注, 唐玄宗御注 등의 注疏本 역시 수록되어 있는 등 관련 필사본 수량이 상당한 편이다. 敦煌本 《老子》는 章數나 배열 순서가 通行本과 같으며 사용된 글자 역시 通行本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나 通行本에 비해 虛詞가 적게 사용된 편이며 글자수 또한 帛書本에 비해 적은 편이다. 본고에서는 唐의 것이라 확정지을 수 있는 민간 계통 필사본을 채택하여 그 원문을 정리하였는 바 《老子》 제1장부터 7장까지는 ‘伯2584’ 필사본을, 제8장부터 81장까지는 ‘斯6453’ 필사본을 사용하였다.⁵⁾

2. 전래문헌

현존하는 전래문헌 중 가장 대표적인 通行本은 王弼本과 河上公本이다. 鄭良樹 《老子新校》(臺北, 臺灣學生書局, 1997)에서는 序論에서 朱謙之의 견해를 인용하여 王弼本과 河上公本을 각각 문인 계통과 민간 계통의 판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河上公本은 東漢 중기 이후 및 王弼本 이전에 속하는 판본으로, 王弼本은 王弼이 三國 시기 魏나라 인물인 점을 감안하여 河上公本 이후의 판본을 底本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王弼本의 경우 《諸子集成(三)》(北京, 中華書局, 1986)에 수록된 王弼注 《老子》 원문을 사용하였다. 河上公本이나 王弼本 등의 전래문헌은 그 이전의 出土문헌 판본들과는 달리 虛詞 및 實詞 등 문자 사용에 있어 비교적 통일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5) ‘伯2584’의 ‘伯’이란 독일인 Paul Pelliot의 중국 이름인 伯希和의 앞글자이며 ‘2584’란 그가 소장한 敦煌 필사본 번호를 일컫는다. ‘斯6453’의 ‘斯’는 영국인 Marc Aurel Stein의 중국 이름인 斯坦因을 일컫는다. 朱大星 《敦煌本〈老子〉研究》(北京, 中華書局, 2007, 61쪽)가 인용한 池田溫의 의견에 따르면 ‘伯2584’는 8세기 초엽의 필사본이다. 또한 朱大星(34쪽)은 ‘斯6453’의 말미에 적혀 있는 「大唐天寶十載歲次辛卯正月乙酉朔廿六日庚戌, 燉煌郡燉煌縣玉關郎」 중 「大唐天寶」를 근거로 해당 필사본의 筆寫年代를 AD 751년으로 추정하였다.

王弼本을 통행본의 대표 판본으로 삼아 비교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Ⅲ. 통행본 《老子》 ‘兮’의 판본별 사용 현황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는 王弼本을 통행본으로 삼아 판본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 王弼本 《老子》에는 ‘兮’가 총 25차례 출현하는데 4章, 15章, 17章, 20章, 21章, 25章, 34章, 58章에 그 용례가 보이며 상기 章節의 내용은 北大簡, 帛書乙, 敦煌本 등 西漢 시기 이후의 판본에는 모두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郭店簡에는 15章, 17章, 25章에 해당하는 용례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⁶⁾ 서술의 편의를 위해 우선 통행본 ‘兮’자 관련된 구체적인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湛兮似若存. (王弼本 4章)
- (2) 荒兮其未央哉! (王弼本 20章)
- (3) 我獨泊兮其未兆, 如嬰兒之未孩. (王弼本 20章)
- (4) 儻儻兮若無所歸. (王弼本 20章)
- (5) 我愚人之心也哉! 沌沌兮. (王弼本 20章)
- (6) 澹兮其若海. (王弼本 20章)
- (7) 颺兮若無止. (王弼本 20章)
- (8) 惚兮恍兮, 其中有象. (王弼本 21章)
- (9) 恍兮惚兮, 其中有物. (王弼本 21章)
- (10) 窈兮冥兮, 其中有精. (王弼本 21章)
- (11) 大道汜兮, 其可左右. (王弼本 34章)
- (12) 禍兮福之所倚. (王弼本 58章)
- (13) 福兮禍之所伏. (王弼本 58章)
- (14) 猶兮若畏四鄰. (王弼本 15章)
- (15) 儼兮其若客.⁷⁾ (王弼本 15章)

6) 郭店簡 《老子》의 내용은 帛書本이나 통행본에 대부분 출현하지만 그量は 帛書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郭店簡과 帛書本은 다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학계에서는 아직도 두 판본의 관계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 논의는 李若暉 《郭店竹書老子論考》(濟南, 齊魯書社, 2004)와 韓祿伯 《簡帛老子研究》(Robert G. Henricks, 北京, 學苑出版社, 2002) 참조.

- (16) 渙兮若冰之將釋. (王弼本 15章)
 (17) 敦兮其若樸. (王弼本 15章)
 (18) 曠兮其若谷. (王弼本 15章)
 (19) 混兮其若濁. (王弼本 15章)
 (20) 悠兮其貴言. (王弼本 17章)
 (21) 寂兮寥兮, 獨立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王弼本 25章)

상기 예문들의 ‘兮’자는 《老子》 각 판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아래에서는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판본 비교의 특성상 원문 용례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老子》 판본 용례를 인용할 때 영어 알파벳을 붙여 판본 용례를 구분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1)은 王弼本, (1a)는 郭店簡, (1b)는 北大簡, (1c)는 帛書乙을 일컫는다.

1. 郭店簡 《老子》에서의 현황

상술한 바와 같이 郭店簡 《老子》에는 15章, 17章, 25章에 해당하는 용례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통행본 예문은 (18)을 제외한 (14)부터 (21)까지이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통행본의 ‘兮’에 상응하는 6곳이 郭店簡에는 ‘兮’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통행본 예문(18)은 郭店簡에는 용례 자체가 없으며, 예문(21)은 ‘兮’에 해당하는 자리에 어떤 글자도 사용되지 않았다.

- (14a) 猶兮其如畏四鄰. (郭店甲 8-9號簡)
 (15a) 儼兮其如客. (郭店甲 9號簡)
 (16a) 渙兮其如釋. (郭店甲 9號簡)
 (17a) 混兮其如樸. (郭店甲 9號簡)
 (19a) 沌兮其如濁. (郭店甲 9號簡)
 (20a) 猶兮其貴言也. (郭店丙 2號簡)

7) ‘客’은 王弼本에서는 ‘容’으로 쓰이고 있지만 초기 판본인 郭店簡, 北大簡, 帛書乙과 河上公本 등에서는 전부 ‘客’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 鄭良樹는 王旭의 의견을 인용하여 ‘客’ 다음 구문에 쓰인 ‘釋’, ‘樸’, ‘谷’ 등이 ‘客’과 押韻되고 있으며 ‘容’은 ‘客’의 誤字라 주장하였다. (鄭良樹 《老子新校》臺北, 臺灣學生書局, 1997, 67쪽) 본고에서도 ‘容’ 대신 ‘客’을 사용한다.

(21a) 寂寥，獨立不改，可以爲天下母。(郭店甲 21號簡)

2. 北大簡《老子》에서의 현황

통행본에 ‘兮’자로 쓰인 부분이 北大簡에서는 ‘旃’나 ‘庠’로 쓰이고 있는데 ‘旃’자는 12곳으로 (1), (3), (4), (6), (7), (8), (9), (10), (11)에 쓰이고 있고 ‘庠’자는 9곳으로 (2)와 (5), 그리고(14)부터 (20)까지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3곳인 예문 (12), (13), (21)에는 어떤 글자도 사용되어 있지 않다.

(12b) 禍，福之所倚。(北大簡)

(13b) 福，禍之所伏。(北大簡)

(21b) 寂寥，獨立而不改，遍行而不殆，可以爲天地母。(北大簡)

3. 帛書乙《老子》에서의 현황

통행본에서 ‘兮’자로 쓰인 부분이 帛書乙《老子》에는 예문(3), (12), (13)을 제외한 22곳이 전부 ‘呵’로 쓰여 있다. 예문(3)은 ‘焉’으로, 예문(12)와 (13)은 휴지만 있을 뿐 어떤 글자도 덧붙여져 있지 않은데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3c) 我博(泊)焉未兆，若嬰兒未咳。(帛書乙)

(12c) 禍，福之所倚。(帛書甲)

(13c) 福，禍之所伏。(帛書甲)

4. 敦煌本《老子》에서의 현황

敦煌本《老子》는 통행본에 ‘兮’로 쓰인 부분에 어떠한 글자도 부가되어 있지 않다. 통행본 21章을 예로 들자면 예문(8)인 「惚兮恍兮，其中有象。」은 「恍惚中有象。」으로, 예문(9) 「恍兮惚兮，其中有物。」는 「恍惚中有物」로, 예문(10) 「窈兮冥兮，其中有精。」은 「窈冥中有精。」으로 사용되고 있다. 敦煌本《老子》는 ‘兮’자 외에도 수많은 虛詞가 삭제되어 있다.⁸⁾

5.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시기별로 구분 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통행본 《老子》 ‘兮’자에 해당하는 글자의 판본별 사용 현황

예문 (王弼本 기준)	戰國中後期	西漢		魏晉	唐
	郭店簡	北大簡	帛書乙	王弼本	敦煌本
(1) 湛兮似若存	/	旖	呵	兮	—
(2) 荒兮其未央哉	/	庠	呵	兮	—
(3) 我獨泊兮其未兆	/	旖	焉	兮	—
(4) 儻儻兮若無所歸	/	旖	呵	兮	—
(5) 我愚人之心也哉! 沌沌兮	/	庠	呵	兮	—
(6) 澹兮其若海	/	旖	呵	兮	—
(7) 颯兮若無止	/	旖	呵	兮	—
(8) 惚兮恍兮, 其中有象	/	旖,旖	呵,呵	兮,兮	—
(9) 恍兮惚兮, 其中有物	/	旖,旖	呵,呵	兮,兮	—
(10) 窈兮冥兮, 其中有精	/	旖,旖	呵,呵	兮,兮	—
(11) 大道汜兮, 其可左右	/	旖	呵	兮	—
(12) 禍兮福之所倚	/	—	—	兮	—
(13) 福兮禍之所伏	/	—	—	兮	—
(14) 猶兮若畏四鄰	虞	庠	呵	兮	—

- 8)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통행본 《老子》의 성격에 대해 支菊生(也談《詩經》與楚辭中的‘兮’字)(《河北大學學報》1987年 第3期, 66쪽)에서는 산문과 운문이 결합된 ‘哲理詩’라고 부르고 있다. 《老子》는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諸子散文 작품에 속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押韻을 사용하는 韻文 자료이기도 하다. 필자는 《老子》가 散文 作品中에서 韻文 作品으로의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는 郭店簡에서 北大簡과 帛書乙을 거쳐 통행본에서 완성되며 더 나아가 敦煌本까지 이어진다. 또한 敦煌本에서는 《老子》 책의 글자 수를 중시하는 경향이 엿보이는데 상당수의 필사본에는 每章이 끝날 때마다 그 章의 글자 수가 적혀 있다. 이는 일부 학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司馬遷이 《史記》에서 언급한 ‘老子五千言’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 때문인지 본고에서 고찰한 敦煌本 《老子》 민간 계통 필사본에서는 유독 虛詞를 많이 삭제하고 있다.

(15) 儼兮其若客	𠄎	𠄎	呵	兮	—
(16) 渙兮若冰之將釋	𠄎	𠄎	呵	兮	—
(17) 敦兮其若樸	𠄎	𠄎	呵	兮	—
(18) 曠兮其若谷	/	𠄎	呵	兮	—
(19) 混兮其若濁	𠄎	𠄎	呵	兮	—
(20) 悠兮其貴言	𠄎	𠄎	呵	兮	/
(21) 寂兮寥兮, 獨立不改	—	—	呵, 呵	兮, 兮	—

※ ‘/’는 해당 구문이 해당 판본에 원래 없음을, ‘—’는 해당 판본에 해당 구문이 있으나 ‘兮’에 상응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음을 의미함.

앞서 II.1에서도 언급하였지만 北大簡과 帛書乙은 시기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기의 판본에 속한다. 王弼本 《老子》에서 ‘兮’로 쓰이는 부분은 河上公本을 포함한 통행본에서는 거의 대부분 ‘兮’로 적혀 있다. 즉 통행본 《老子》 ‘兮’에 해당하는 출토문헌 글자는 ‘𠄎’, ‘呵’, ‘旖’, ‘𠄎’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반면 전래문헌에서는 보통 ‘兮’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IV. 《老子》 판본별 相異한 文字 사용에 대한 고찰

앞서 살펴보았듯이 통행본 《老子》에서 ‘兮’로 쓰이는 부분이 출토문헌에서는 다양한 글자로 쓰이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 것일까? 즉 帛書乙에서 ‘呵’로 쓰이는 부분이 北大簡에서는 왜 ‘旖’와 ‘𠄎’로 쓰여 있으며 이는 王弼本에서는 왜 다시 ‘兮’로 적혀 있는 것일까? 또한 郭店簡에서 ‘𠄎’로 적혀 있는 부분이 北大簡에는 왜 ‘𠄎’로 적혀 있고, 王弼本에서는 왜 ‘兮’로 쓰여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우선 글자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1. ‘旖’와 ‘呵’, 그리고 ‘兮’

통행본 《老子》에서의 ‘兮’는 帛書乙 《老子》에서는 ‘呵’로, 北大簡 《老子》에서는 ‘旖’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글자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

‘旂’는 北大簡 뿐만 아니라 阜陽漢簡 《詩經》⁹⁾에도 쓰이고 있다.¹⁰⁾ 胡平生·韓自強 《阜陽漢簡詩經研究》(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46쪽)에서는 《說文解字》에서 ‘旂’를 ‘旂施’, 즉 깃발 모양(旗貌)라 풀이하고 있고 ‘旂施’는 고문헌 자료에서 ‘旂旒’나 ‘旂泥’로도 쓰이고 있는 점을 근거로 ‘旂’와 ‘旂’가 서로 통한다고 보았다.¹¹⁾ ‘旂’와 ‘旂’ 모두 影母歌部に 속하며 ‘旂’를 聲符로 하기에 通假 가능성은 충분하다. 재미있는 사실은 阜陽漢簡 《詩經》의 ‘旂’가 通行本 《詩經》에서는 ‘兮’로 쓰이고 있고, 先秦 시기의 ‘旂’ 역시 후대에는 ‘兮’로 쓰이기도 하는 등 두 글자가 후대 자료에서 ‘兮’와 通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²⁾

그렇다면 이 ‘呵’와 ‘兮’의 관계는 어떠한가? 孔廣森과 聞一多是 일찌기 ‘兮’와 ‘旂’는 通하며 두 글자 모두 呵나 啊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¹³⁾ ‘呵’는 曉母歌部に 속하고 ‘兮’는 郭錫良 《漢字古音手冊》에서 匣母支部로 분류하고 있지만 孔廣森과 嚴可均是 歌部로 귀속시키고 있다.¹⁴⁾ 즉 ‘呵’와 ‘兮’는 모두 韻部가 歌部로 귀속되어 相通하며 ‘旂’와 ‘呵’ 역시 韻部가 歌部로 귀속되므로 通假 가능하

9) 阜陽漢簡은 1977년 安徽省 阜陽縣 雙古堆 1號 漢墓에서 발굴된 漢代 簡牘이다. 阜陽漢簡 중 《詩經》 관련 자료는 총 170여개의 殘簡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詩經》의 〈國風〉 관련 자료 65편, 〈小雅〉 관련 자료 4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筆寫 年代에 대해 孫斌來(1985: 14-17쪽)는 漢 高帝와 惠帝 사이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阜陽漢簡 관련 원문 및 釋文 자료는 胡平生, 韓自強 《阜陽漢簡詩經研究》(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참조.

10) 阜陽漢簡 《詩經》에서 ‘旂’에 해당하는 글자는 ‘旂’나 ‘旂’로 豫定할 수 있는데, 胡平生·韓自強(《阜陽漢簡詩經研究》(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46쪽)은 이 두 글자를 ‘旂’의 異體字로 보았다. 즉 ‘旂’는 從从省奇聲으로, ‘旂’는 從从可聲(‘奇’에 대해 《說文解字》에서는 從大從可로 분석하고 있는데 段玉裁는 그 중 ‘可’를 소리 성분으로도 보고 있다.)이므로 從从奇聲인 ‘旂’와 통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도 阜陽漢簡의 ‘旂’나 ‘旂’를 ‘旂’의 異體字로 보고 있기에 관련 논의를 진행할 때 ‘旂’로 두 豫定 글자를 대체하도록 하겠다.

11) 사실상 ‘旂旒’는 ‘阿那’로 풀이되기도 한다.《史記·司馬相如傳》:「旂旒從風」司馬貞《索隱》引張揖云:「旂旒, 阿那也.」

12) ‘旂’가 후대 자료에서 ‘兮’와 통하는 예로는 《尚書·秦誓》「斷斷旂」의 ‘旂’가 《禮記·大學》에서는 ‘兮’로 쓰인다는 것과 《詩經·魏風·伐檀》「河水清且漣旂」의 ‘旂’가 漢石經에서는 ‘兮’로 쓰이고 있다는 자료가 그러한데 이는 ‘旂’와 ‘兮’의 관계를 논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용례이기도 하다.

13) 曹錦炎 〈上海博物館藏戰國竹書《楚辭》〉:《文物》2010年 第2期, 61쪽 참조.

14) 何九盈 〈古韻三十部歸字總論〉:《古韻叢稿》70쪽. (程燕 〈考古文獻《詩經》異文辨析〉安徽, 安徽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4, 63쪽 재인용.)

다. 이렇듯 ‘呵’, ‘旡’는 ‘兮’와 서로 通假가 가능한 글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통행본 《老子》의 ‘兮’가 왜 帛書乙 《老子》에서는 ‘呵’로 쓰이는 것일까? 이들은 단순한 通假字일 뿐일까? 아니면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결과일까?

필자는 帛書乙의 ‘呵’는 楚나라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는 字形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2011년에 출판된 上博簡¹⁵⁾에는 楚辭 작품이 4편 실려 있는데 ‘兮’가 놓여야 할 부분에 대부분 ‘可’자가 쓰여 있으며 이는 출토문헌인 楚 竹簡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음운학적으로 살펴본다면 ‘可’는 溪母歌部이고 ‘呵’는 曉母歌部이므로 같은 歌部에 귀속된다. 또한 字形만 놓고 살펴보더라도 帛書乙의 ‘呵’는 從口可聲의 글자로 ‘可’旁을 따른다. 이는 帛書乙 ‘呵’가 楚나라의 문자 사용 습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傍證이다. 필자는 楚의 ‘可’가 ‘呵’로 읽히고 있는 더 직접적인 용례를 郭店簡 《老子》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2a) 古道□□□, 淡可其無味也. (郭店丙 4-5號簡)

윗 예문은 통행본 《老子》35章에 출현하는 용례로 帛書甲 《老子》에서는 「故道之出言也, 曰: 淡呵其無味也. (도는 말로 드러내어 나온다면 담백하여 아무 맛이 없다.)」라 쓰이고 있다. ‘淡’은 ‘담백하다’는 뜻으로 형용사이다. 「淡可」는 ‘VP+可’ 구조로 「其無味」의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可’는 여기에서 ‘兮’에 해당하는 어기사로 쓰였는데¹⁶⁾ 이는 上博簡 楚辭 작품에서 ‘可’가 ‘兮’를 대신하는 어기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리하면, 帛書乙의 ‘呵’가 郭店簡에서는 ‘可’로 쓰여 있는데 이는 上博簡 楚辭 작품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楚나라의 출토문헌에만 보여지는 지역적 언어 특색, 즉 楚方言의 특징이다.

윗글에서 어기사 용법으로 쓰이는 ‘可’와 ‘呵’는 楚方言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兮’

15) 馬承源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八)》(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上博簡이란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에 수록된 죽간 자료를 의미한다. 현재 上博簡은 上海古籍出版社에서 9冊까지 출판되었으며 그 筆寫 年代에 대해 학계에서는 보통 郭店簡과 비슷한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

16) 郭店簡에서 ‘可’는 주로 可의 可로 쓰인다. 또한 어기사 용법 외에도 의문대명사 何와 동사 訶로도 通假된다. 일례로 帛書甲의 「唯與訶, 其相去幾何?」가 郭店簡에서는 「唯與可, 相去幾可?」(郭店乙 4號簡)로 쓰이고 있다.

는 어떤 성격을 지녔을까? ‘兮’는 楚辭에 다량으로 운용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兮’를 楚方言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兮’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다수의 학자들이 언급하였듯이 ‘兮’는 楚辭 작품뿐만 아니라 《詩經》에도 출현한다. 陳士林的 연구에 따르면 《詩經》에서의 ‘兮’는 〈國風〉, 〈小雅〉, 〈大雅〉 등에 골고루 쓰이고 있으며 지리적인 분포도를 살펴보다라도 黃河 유역의 魏·檜·鄭·衛, 동쪽 지역에 위치한 齊, 서쪽에 위치한 豳·秦, 남쪽의 二南 등에서 사용하는 등 그 사용 지역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¹⁷⁾ 즉 ‘兮’는 당시의 通語¹⁸⁾였던 것이다.

2. ‘虎’와 ‘虍’, 그리고 ‘乎’

‘虎’와 ‘虍’ 모두 乎의 通假字이다. 張振林 〈先秦古文字材料中的語氣詞〉(《古文字研究》北京, 商務印書館 1982, 301쪽)은 ‘虍’는 甲骨文과 西周春秋 시기 金文에 모두 쓰이지만 보통 ‘부르다(呼喚)’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語氣詞로 쓰이는 예는 中山王鼎에 처음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虍’는 戰國 시기 출토문헌인 郭店簡, 上博簡에서는 ‘虎’·‘虍’·‘虍’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글자들은 모두 乎와 通假된다. 즉 ‘虎’는 從口虎聲으로, ‘虍’는 從口虎省聲으로 모두 虎 소리를 따르고 있는데¹⁹⁾ 虎는 曉母魚部, 乎는 匣母魚部에 속하여 聲母는 둘 다 喉音에 속하고 韻母는 둘 다 魚部에 속하므로 相通한다. ‘虍’ 역시 虎省聲을 따르는 글자이므로 乎와 通假될 수 있으며²⁰⁾ ‘虍’는 아예 乎聲을 따르고 있다. 그렇기에 고문자 학계에서는 郭店簡이나 上博簡에 출현하는 상기 글자들을 모두 직접 乎로 읽고 있기도 하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23) 有故虎? 願聞之. (上博《東大王泊旱》21號簡)

(24) 文王雖欲已, 得虍? 此命也. (上博《孔子詩論》7號簡)

17) 陳士林 〈楚辭“兮”字說〉(《民族語文》1992年 第4期), 1쪽 참조.

18) ‘通語’는 揚雄 《方言》에 출현하는 어휘로 지역을 막론하고 당시 통용되던 언어를 일컬으며 現代漢語의 普通話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에 상반되는 개념은 方言이라 부른다. 관련 선행 연구는 柳玉宏 〈說“通語”—揚雄《方言》術語商榷〉(《蘭州學刊》2007年 第5期), 155쪽 참조.

19) ‘虎’와 ‘虍’는 異體 관계에 있는 글자로 판단된다.

20) ‘虍’의 疒은 人의 변형이다. 즉 虎의 儿와 虍의 疒은 모두 人을 따르고 있다.

- (25) 其欲雨或(又)甚於我, 或(又)必待吾名(命)虜? (上博《魯邦大旱》5號簡)
 (26) 雖君無道, 臣敢勿事虜? 雖父無道, 子敢勿事虜? (上博《容成氏》46號簡)

상기 예문은 모두 의문문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23)은 「이유가 있습니까? 듣기를 원합니다.」로, (24)는 「문왕이 그만두고자 한다 한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命입니다.」로, (25)는 「그 비가 내리기를 원함이 또한 나보다 더할 텐데 반드시 내 명을 기다려야 합니까?」로, (26)은 「설사 군주가 無道하다 하더라도 신하가 감히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아버지가 無道하다 하더라도 자식된 자가 감히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로 풀이된다. 즉 상기 예문의 ‘虜’, ‘虜’, ‘虜’, ‘虜’는 모두 乎로 通假되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출토문헌만을 놓고 보자면 ‘乎’字는 秦末 漢初에 출현한다. 戰國 시기 ‘乎’類 글자들 중 다른 글자들은 도태되지만 ‘虜’는 살아남는데 상기 언급한 北大簡《老子》예문들에서 ‘虜’가 쓰이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또한 ‘乎’字는 帛書乙《老子》와 阜陽漢簡《詩經》에 출현한다.

- (27) [俟]我乎堂乎而. (나를 대청에서 기다렸다.) (阜陽漢簡《詩經·齊風·著》S094)

예문(27)에서 첫 번째 ‘乎’는 전치사 용법으로 쓰였는데 통행본에서는 ‘於’로 쓰이고 있다. 두 번째 ‘乎’는 ‘而’와 같이 쓰인 어기사이다. 21)

21) ‘虜’는 사실 갑골문, 금문에 걸쳐 두루 출현하는 글자로 당시 通語에 속하는 글자라 할 수 있다. ‘旃’의 경우,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阜陽漢簡《詩經》의 성격에 대해 孫斌來는 李學勤의 의견에 동의해 阜陽漢簡《詩經》이 비록 西漢 初期에 필사된 竹簡이지만 楚나라로부터 전해내려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孫斌來〈阜陽漢簡《詩經》的傳本及抄寫年代〉:《古籍整理研究學刊》1985年 第4期, 14-17쪽 참조) 어느 정도는 楚 언어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글자가 아닐까 판단된다.

V. ‘兮’類 어기사와 ‘乎’類 어기사의 판본별 용법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大簡의 ‘旖’, 帛書乙의 ‘呵’는 통행본에서 ‘兮’로 쓰이고 있다. 이 세 글자는 通假 가능하다 하였고 ‘呵’는 楚方言, ‘兮’는 通語라 하였으므로 판본별 문자 사용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郭店簡에서의 ‘嘑’와 北大簡에서의 ‘庠’는 통행본에서 어째서 ‘乎’가 아니라 ‘兮’로 바뀌어 적혀 있는 것일까? 본 절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兮’類 어기사와 ‘乎’類 어기사의 각 판본에서의 용법을 고찰한 후 ‘乎’類 어기사의 어떤 용법들이 통행본에서 ‘兮’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정식 본문을 시작하기 전 ‘乎’와 ‘兮’의 품사 성격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乎’와 ‘兮’를 語氣詞라 명명한다. 語氣詞는 文頭 어기사, 文中 어기사, 文尾 어기사가 있는데 乎와 兮는 문중과 문미에 쓰이는 語氣詞에 속한다.²²⁾

1. ‘兮’類 어기사의 《老子》 판본별 용법

앞 절에서 우리는 ‘呵’와 ‘旖’가 ‘兮’로 通假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兮’자 선행 연구 관련하여 《詩經》과 《楚辭》 중의 ‘兮’를 연구한 논문은 많은 편이지만 《老子》를, 그것도 판본 비교를 통해 언어학적인 각도로 《老子》의 ‘兮’만을 연구한 논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본 절에서는 郭店簡과 帛書乙에서 각각 ‘呵’와 ‘旖’로, 北大簡에서는 ‘旖’로, 통행본에서는 ‘兮’로 적혀 있는 이 글자들이 각 판본에서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兮’의 어기에 대해 楊伯峻은 《古漢語虛詞》(北京, 中華書局, 1981, 205쪽)에서 文中에 쓰여 휴지 어기를, 文尾에 쓰여 완만한 어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 절에서 용법을 살펴볼 때 판본 비교의 특성상 용례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행본 ‘兮’자가 출현하는 용례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판본들에서의 용법 역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각 예문의 번호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 절에서

22) ‘語氣詞’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助詞나 助字, 辭 등의 명칭이 이를 대신하였다. 語氣詞 명칭 및 그 범위 관련해서는 曹銀晶 《“也”“矣”“已”的功能及其演變》(北京,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12) 2-3쪽 참조.

사용한 예문 번호를 사용함을 미리 밝혀둔다.

1) 王弼本《老子》‘兮’의 용법

王弼本《老子》에는 총 25차례의 ‘兮’가 출현한다. 판본 비교하는 장에서 나열했던 용례를 구법 위치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文中 어기사로 쓰이는 경우

‘兮’가 文中에 놓여 어기사로 쓰이는 경우는 총 23회 출현하였는데 모두 휴지 어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합양상은 ‘VP+兮+(其+)VP’와 ‘VP+兮+(VP+兮+)+SP’ 그리고 ‘NP+兮+VP’ 세 가지이다.

가) VP+兮+(其+)VP

본 구문은 총 13회 출현한다.

- (1) 湛兮似或存. (맑아서 없는 듯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도 같다.) (王弼本 4章)
- (2) 荒兮其未央哉! (넓고 멀어서 다함이 없다.) (王弼本 20章)
- (3) 我獨泊兮其未兆, 如嬰兒之未孩. (나는 홀로 담담하게 아무런 조짐도 드러내지 않는다. 갓난아이가 아직 웃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王弼本 20章)
- (4) 儻兮若無所歸. (지쳐서 돌아갈 곳이 없는 것과 같다.) (王弼本 20章)
- (6) 澹兮其若海. (담담해 바다와 같다.) (王弼本 20章)
- (7) 颺兮若無止. (날아올라 멈춤이 없는 듯하다.) (王弼本 20章)
- (14) 猶兮若畏四鄰. (삼가함은 마치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王弼本 15章)
- (15) 儼兮其若客. (엄숙함은 마치 손님과도 같다.) (王弼本 15章)
- (16) 渙兮若冰之將釋. (홀어짐은 마치 얼음이 녹으려는 것 같다.) (王弼本 15章)
- (17) 敦兮其若樸. (질박함은 마치 다듬지 않은 원목과 같다.) (王弼本 15章)
- (18) 曠兮其若谷. (널찍함은 마치 계곡과 같다.) (王弼本 15章)
- (19) 混兮其若濁. (혼돈스러움은 마치 혼탁한 물과 같다.) (王弼本 15章)
- (20) 悠兮其貴言. (여유롭게 말을 귀히 여긴다.) (王弼本 17章)

예문(1)은 帛書乙과 北大簡에도 보이는데 각각 「湛呵似或存」와 「湛旖似或存」으로 쓰여 어기사 부분을 제외한 다른 文例는 같다. ‘湛’은 ‘맑다’는 의미의 형용사로 《說文》에서는 「湛, 沒也。」라 풀이하고 있다. 즉 ‘물에 감추어져 있어 없는 듯하다’, 혹은 ‘맑고 투명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즉 「湛兮」, 「湛呵」, 「湛旖」는 모두 ‘VP+어기사’ 구조로 「似或存」을 수식하고 있다. 예문(2)는 帛書乙과 北大簡에 각각 「望呵其未央哉!」과 「荒兮其未央哉!」로 쓰이고 있다. ‘荒’은 ‘넓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央’은 ‘다하다’(《廣雅·釋詁》: 「央, 盡也」)라는 의미이다. ‘望’은 ‘望’의 옛 글자이며 ‘望’과 ‘荒’은 通假 가능한 글자이다. ‘望’ 역시 ‘넓고 멀다’는 형용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문(3)은 帛書乙과 北大簡에서 각각 「我博焉未兆, 若嬰兒未咳。」와 「我泊旖未兆, 若嬰兒之未咳。」로 쓰인다. ‘泊’은 ‘담담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孩’는 다른 판본에서는 ‘咳’로 쓰여 있는데 이는 ‘어린아이의 웃음’(《說文》: 「咳, 小兒笑也。」)이라는 뜻이다. 예문(4)는 帛書乙과 北大簡에서 각각 「僂呵似无所歸。」와 「絜旖似无所歸。」로 쓰이고 있다. ‘僂’는 ‘僂’와 ‘絜’와는 通假 가능한데 ‘지치고 피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며 ‘僂僂’는 ‘지치고 피곤한 모양’을 형용하고 있다. 예문(6)과 (7)은 帛書乙과 北大簡에서 각각 「沕呵其若海, 望呵若无所止。」와 「忽旖其如晦, 恍旖其無所止。」로 쓰이고 있다. ‘沕’과 ‘忽’은 通假 가능한 글자이다. 예문(14)부터 (19)까지는 帛書乙과 北大簡에서 각각 「猷呵其若畏四鄰; 嚴呵其若客; 渙呵其若淩澤; 沌呵其若樸; 澁呵其若浴; 澹呵其若濁。」와 「猶庠其如畏四鄰; 儼庠其如客; 渙庠其如冰之釋; 敦庠其如樸; 曠庠其如谷; 沌庠其如濁。」으로 쓰이고 있으며 郭店簡에서는 「猶虎其如畏四鄰; 儼虎其如客; 渙虎其如釋; 混虎其如樸; 沌虎其如濁。」로 쓰이고 있다. 예문(18)은 郭店簡에는 구문 자체가 없다. 예문(20)은 帛書乙과 北大簡에서 각각 「猷呵其貴言也。」와 「猶庠其貴言。」으로, 郭店簡에서는 「猶虎其貴言也。」로 쓰이고 있다.

나) VP+兮+(VP+兮+)SP

본 구문은 총 9회 출현한다. 그 중 ‘SP+VP+兮’가 1회, ‘VP+兮+VP+兮+SP’가 8회 출현하는데 전자는 ‘VP+兮+SP’의 도치 구문이다.

(5) 我愚人之心也哉! 沌沌兮!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구나! 흐리멍덩하

- 계도!) (王弼本 20章)
- (8) 惚兮恍兮, 其中有象. (황홀하여 그 가운데 형상이 있다.) (王弼本 21章)
- (9) 恍兮惚兮, 其中有物. (황홀하여 그 가운데 만물이 있다.) (王弼本 21章)
- (10) 窈兮冥兮, 其中有精. (길고 어두워 그 가운데 정기가 있다.) (王弼本 21章)
- (21) 寂兮寥兮, 獨立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홀로 서서 바뀌지 않는다.) (王弼本 25章)

예문(5)는 帛書乙과 北大簡에서 각각 「我愚人之心也, 溱溱呵。」와 「我愚人之心也哉! 沌沌乎!」로 쓰이고 있다. '沌沌'과 '溱溱'은 모두 '無知한 모양'을 형용하고 있다. 예문(8)은 帛書乙과 北大簡에서 각각 「沕呵望呵, 中又象呵。」와 「惚旒恍旒, 其中有象旒。」로 쓰이고 있는데 '沕'은 '惚'과, '望'은 '恍'과 通假 가능하다. '恍惚'은 '있는 듯 없는 듯하여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을 형용하고 있다. 예문(9)는 帛書乙과 北大簡에서 각각 「望呵沕呵, 中有物呵」와 「恍旒惚旒, 其中有物旒。」로 쓰이고 있다. 예문(10)은 帛書乙과 北大簡에서 각각 「幼呵冥呵, 其中有請呵。」와 「幽旒冥旒, 其中有請旒。」로 쓰이고 있다. '窈冥'은 '길고 멀고 어둡다'는 뜻으로 형용사이다. 예문(21)은 帛書乙과 北大簡에서 각각 「蕭呵漻呵, 獨立而不改, 可以爲天地母。」와 「寂寥, 獨立而不改, 遍行而不殆, 可以爲天地母。」로 쓰이고 있으며 郭店簡에서는 「寂寥, 獨立不改, 可以爲天下母。」로 쓰이고 있다. 帛書乙의 '蕭'와 '漻'은 각각 '寂'와 '寥'으로 읽힌다.

다) NP+兮+VP

본 구조는 통행본 《老子》 58章에만 보여지는 용례로 帛書乙이나 北大簡에서는 「禍, 福之所倚. 福, 禍之所伏。」로 쓰이고 있다. 본 구문은 《呂氏春秋》에서 「禍者福之所倚, 福者禍之所伏。」로 쓰이고 있다.

- (12) 禍兮福之所倚. (화는 복이 기대는 것이다.) (王弼本 58章)
- (13) 福兮禍之所伏. (복은 화가 숨어있는 것이다.) (王弼本 58章)

② 文尾 어기사로 쓰이는 경우

이 경우는 총 1회 출현하였는데 완만한 어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합양상은

‘NP+VP+兮’이다. 아래 예문은 帛書乙과 北大簡에서 각각 「道汎呵, 其可左右也。」와 「道汎旖, 其可左右。」로 쓰이고 있다.

- (11) 大道汎兮, 其可左右. (큰 도는 범람하여 왼편 오른편 어디에나 있다.)
(王弼本 34章)

2) 郭店簡 《老子》 어기사 ‘可’의 용법

앞서 IV.1 예문(22a)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郭店簡 《老子》에는 ‘可’의 어기사 용법이 총 1회 출현한다. 그 용례는 「淡可其無味也」로서 ‘VP+可+(其+)VP’ 구조에 속하며 ‘可’는 文中 어기사로 쓰였다.

3) 北大簡 《老子》 어기사 ‘旖’의 용법

北大簡 《老子》에는 어기사 ‘旖’가 총 17차례 출현하는데 王弼本이나 帛書乙에서 각각 ‘兮’나 ‘呵’로 쓰이는 부분이 ‘庠’로 많이 쓰여 있다.

① 文中 어기사로 쓰이는 경우

北大簡 《老子》에는 ‘VP+旖+(其+)VP’ 구문이 총 7회 출현하는데 모두 휴지 어기를 나타낸다. 즉 위에 언급한 王弼本 《老子》의 예문 중 (1), (3), (4), (6), (7)의 용례가 중복 출현한다. 그 외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8b) 淵旖似萬物之宗. (北大簡, 통행본4장)
(22b) 道之出言曰: 淡旖其無味. (北大簡, 통행본35장)

‘VP+旖+(VP+旖+)SP’ 구문의 경우 北大簡 《老子》에서는 王弼本보다 2차례 적은 6회 출현하는데 그 용법은 王弼本の (8), (9), (10)과 같다. 그러나 ‘NP+旖+VP’ 구문은 北大簡 《老子》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② 文尾 어기사로 쓰이는 경우

이 경우는 총 4회 출현하였는데 위에 언급한 예문인 王弼本の (11)이

‘NP+VP+旖’구조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王弼本 《老子》에는 쓰이지 않는 ‘SP+旖’구문이 3회 출현한다.

(29b) 惚旖恍旖，其中有象旖．恍旖惚旖，其中有物旖．幽旖冥旖，其中有情旖．(北大簡, 통행본21장)

예문(29b)는 王弼本 (8), (9), (10) 예문을 합친 용례로 王弼本에는 없는 文尾 어기사가 출현한다.

4) 帛書乙 《老子》 어기사 ‘呵’의 용법

帛書乙 《老子》에는 ‘呵’가 총 34차례 출현하는데 그 중 3차례의 용례가 實詞로 쓰인 것을 제외하면 총 31차례의 어기사 용법이 출현한다. 각각의 상황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文中 어기사로 쓰이는 경우

帛書乙 《老子》에서는 ‘VP+呵+(其+)VP’ 구문이 총 16회 출현하여 王弼本보다 3회 많이 쓰인다. 帛書乙 《老子》에는 상기 언급한 王弼本 《老子》의 예문 중 본 구문에 해당하는 용례가 거의 대부분 출현한다. 즉 예문(3)을 제외한 (1), (2), (4), (6), (7), (14), (15), (16), (17), (18), (19), (20)이 모두 중복 출현하고 있다. 예문(3) ‘兮’의 경우 帛書乙에서 ‘焉’으로 쓰이고 있는데 휴지 어기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같은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그 외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28c) 淵呵，似萬物之宗。(심원하여 만물의 근원인 듯하다.) (帛書乙, 통행본4장)

(30c) 尋尋呵不可命也，復歸於无物。(끊임없이 이어져 명명할 수 없다.) (帛書乙, 통행본14장)

(31c) 縣縣呵其若存，用之不堇。(끊어질 듯 말 듯 존재하고 있는 듯하며 아무리 사용해도 끝이 없다.) (帛書乙, 통행본6장)

(32c) 與呵其若冬涉水。(삼가함은 겨울에 물을 건너가는 듯하다.) (帛書乙, 통행본15장)

(30c)의 「尋尋呵不可命也」는 통행본에서는 「繩繩不可名」이라 쓰이고 있다. ‘尋尋’과 ‘繩繩’은 같은 홑으로 通假 가능하며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32c)의 「與呵其若冬涉水」의 ‘與’는 王弼本에서는 ‘豫’로 쓰이는데 ‘주저하다’, ‘삼가하다’는 뜻이다.

‘VP+呵+VP+呵+SP’ 구문의 경우 帛書乙 《老子》에서도 王弼本처럼 총 8회 출현하며 그 용법 역시 같다. 그러나 ‘NP+呵+VP’ 구문은 帛書乙 《老子》에도 출현하지 않는다.

② 文尾 어기사로 쓰이는 경우

이 경우는 총 7회 출현하였는데 모두 완만한 어기를 나타낸다. 위에 언급한 예문인 王弼本の (5)와 (11)이 각각 ‘SP+VP+呵’와 ‘NP+VP+呵’구조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NP+VP+呵’ 구조가 두 번 더 출현한다. 용례 및 용법은 (33)과 같으며 완만한 어기를 나타낸다.

(33c) 嚮人昭昭, 我獨若昏呵. 嚮人察察, 我獨閔閔呵.(세상 사람들은 밝은데 나만 홀로 어두운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은 뚜렷한데 나만 홀로 흐릿하다.) (帛書乙, 통행본20장)

예문(33c)에서 ‘嚮人’은 통행본에서는 ‘俗人’으로 쓰인다. 또한 北大簡처럼 ‘SP+呵’구문이 3회 출현한다.

5) 소결

윗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표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표2] ‘兮’類 어기사의 《老子》 각 판본별 사용 현황

구 분		戰國 中後期		西漢				魏晉	
		郭店簡		北大簡		帛書乙		王弼本	
文中	VP+兮+(其+)VP	1	100%	7	76.5%	16	80.6%	13	96%
	VP+兮+(VP+兮+)SP	-		6		9		9	

	NP+兮+VP	-		-		-		2	
文尾	NP+VP+兮	-	0%	1	23.5%	3	19.4%	1	4%
	SP+兮	-		3		3		-	
출현 횟수		1		17		31		25	

※ 표에서 '兮'는 '兮'類 어기사를 지칭한다.

윗 표를 통해 우리는 北大簡과 帛書乙에서 '兮'類 어기사의 文中 사용 비율이 70-80%대였던 것이 王弼本에서는 96%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표2]에 반영된 현상만을 놓고 보자면 '兮'類 어기사는 상고중국어 시기인 戰國 中後期에서 중고중국어 시기인 魏晉으로 넘어가면서 文尾 사용 비율이 현저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 '乎'類 어기사의 《老子》 판본별 용법

앞 절에서 우리는 '嘯'와 '虜'가 '乎'類 어기사임을 살펴보았다. '乎'는 先秦 시기부터 자주 사용되던 어기사로 어기사 용법 외에도 전치사 용법 등이 있으며 심지어 北大簡에서는 '毋'와 通假되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乎'類 어기사의 《老子》 각 판본에서의 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乎'는 文尾에 자주 쓰이는 어기사로 의문문이나 감탄문에 쓰여 의문 어기, 반문 어기, 감탄 어기 등을 나타낸다. '乎'가 文中에 출현하는 경우 휴지 어기를 나타내거나 VP 뒤에 놓여 'VP+乎'의 형태로 문장의 부사어로 쓰이기도 한다.²³⁾

1) 王弼本 《老子》 어기사 '乎'의 용법

王弼本 《老子》에 어기사 '乎'는 총 11차례 출현하는데 2차례는 文中에, 9차례는 文尾에 쓰이고 있다. 그 중 文中에 출현하는 어기사 '乎'는 모두 'VP+乎+(其+)'VP' 구조이다. 아래 예문 중 (28)은 帛書乙과 北大簡에서는 각각 '呵'와 '旃'로 쓰인다. (22) 역시 郭店簡과 帛書乙에서 '兮'類 어기사인 '可'와 '呵'로 쓰이고 있다.

23) 楊伯峻《古漢語虛詞》北京, 中華書局, 1981, 67-72쪽 참조.

- (28) 淵乎似萬物之宗. (王弼本4章)
- (22) 道之出口, 淡乎其無味. (王弼本35章)

文尾에 출현하는 어기사 ‘乎’는 모두 의문문이나 감탄문의 文尾에 쓰여 의문어기나 감탄어기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SP+乎’구조에 속한다.

- (34) 天地之間, 其猶橐籥乎!(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구나!)(王弼本5章)
- (35) 載營魄抱一, 能無離乎? 專氣致柔, 能嬰兒乎? 滌除元覽, 能無疵乎? 愛民治國, 能無知乎? 天門開闔, 能爲雌乎? 明白四達, 能無爲乎? (흔백을 잘 간수하고 하나로 안아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기운을 오로지하여 부드러움에 이르러 어린아이와 같아질 수 있는가? 현묘함마저 깨끗이 씻어내어 흠이 없을 수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無知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늘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암컷처럼 될 수 있는가? 분명하게 사방에 통달하여도 무위할 수 있는가?) (王弼本10章)
- (36) 天地尚不能久, 而況於人乎? (하늘과 땅조차도 오래 갈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어떠하겠는가?) (王弼本23章)
- (37) 此非以賤爲本邪? 非乎? (이것은 천함으로써 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王弼本39章)

2) 郭店簡《老子》 어기사 ‘𠄎’의 용법

郭店簡《老子》에는 총 6차례의 ‘𠄎’가 출현하는데 모두 文中에 쓰인다. 그 예문을 살펴보자.

- (14a) 猶𠄎其如畏四鄰. (郭店甲 8-9號簡)
- (15a) 儼𠄎其如客. (郭店甲 9號簡)
- (16a) 渙𠄎其如釋. (郭店甲 9號簡)
- (17a) 混𠄎其如樸. (郭店甲 9號簡)
- (19a) 沌𠄎其如濁. (郭店甲 9號簡)
- (20a) 猶𠄎其貴言也. (郭店丙 2號簡)
- (38a) 夜𠄎如冬涉川. (郭店甲 8號簡)

(38a)의 ‘夜’는 王弼本에는 ‘豫’로 적혀 있다. 상기 예문들 중 (38a)를 제외하고

는 모두 통행본에 출현하는데 모두 ‘兮’로 적혀 있으며 그 용례는 王弼本 《老子》의 (14), (15), (16), (17), (19), (20)과 중복된다. 위 예문은 모두 ‘VP+兮+(其+)VP’ 구문에 속한다.

3) 北大簡 《老子》 어기사 ‘虛’의 용법

北大簡 《老子》에는 총 20차례의 어기사 ‘虛’가 출현하는데 文中에 11회, 文尾에 9회 출현한다. 文中에 출현하는 용법은 王弼本 예문 (14)부터 (19)까지 그 용례가 같으며, 帛書乙의 (30c)와 郭店簡의 (38a)와도 그 용례가 겹친다. 그 구조는 ‘VP+乎+(其+)VP’에 속한다. 또한 (5)의 용례도 1회 출현하는데 이는 ‘VP+虛+SP’가 도치된 것이다. 文尾 용법은 王弼本 (34), (35)의 총 7회 어기사 용법 외에도 다음 예문이 있다. 이는 모두 ‘SP+虛’구조에 속한다.

- (39b) 不以其無私虛? 故能成其私. (그것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사사로움도 이룰 수 있다.) (北大簡, 통행본7章)
- (40b) 不曰求以得, 有罪以免虛? 故爲天下貴. (구하면 얻고 죄가 있어도 면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래서 도는 천하의 귀중한 것이다.) (北大簡, 통행본62章)

4) 帛書乙 《老子》 어기사 ‘乎’의 용법

帛書乙 《老子》에는 총 8차례의 어기사 ‘乎’가 쓰이고 있다. 그 중 文中에 쓰이는 용법은 1회, 文尾에 쓰이는 용법은 7회 출현한다.

- (34c) 不貴其師, 不愛其資, 雖知乎大迷. 是胃眇要. (그 스승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귀감이 되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면, 비록 지혜있다 하더라도 크게 미혹된 것이다. 이것을 현명하고 오묘하다고 부른다.) (帛書乙, 통행본27장)

예문(34c)는 文中 어기사로 ‘VP+虛+(其+)VP’구조에 속한다. 文尾 용법은 王弼本の 용례(35)와 (36)와 7회 모두 겹치며 ‘SP+乎’구조로 분석 가능하다.

5) 소결

위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표를 도출해낼 수 있다.

[표3] ‘乎’類 어기사의 《老子》 각 판본별 사용 현황

구 분		戰國 中後期		西漢				魏晉	
		郭店簡		北大簡		帛書乙		王弼本	
文中	VP+乎+(其+)VP	6		10		1		2	
	VP+乎+(VP+乎+)SP	-	100%	1	55%	-	12.5%	-	18.2%
	NP+乎+VP	-		-		-		-	
文尾	NP+VP+乎	-		-		-		-	
	SP+乎	-	0%	9	45%	7	87.5%	9	81.8%
출현 횟수		6		20		8		11	

※ 표에서 ‘乎’는 ‘乎’類 어기사를 일컫는다.

위 표를 통해 우리는 어기사 ‘乎’의 경우 郭店簡에서는 文中 사용률이 높지만 중고중국어 시기인 王弼本에 이르면 그 사용률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며 거꾸로 文尾 사용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乎’類 어기사가 ‘兮’類로 바뀐 용례 및 그 특징

[표1]에서 살펴보았듯이 郭店簡과 北大簡의 (14), (15), (16), (17), (19), (20)과 北大簡의 (2), (5), (18)의 ‘乎’類 어기사가 帛書乙 및 王弼本에서는 ‘兮’類 어기사로 바뀌어 적혀 있다. 이 구문들의 王弼本 용례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荒兮其未央哉! (王弼本 20章)
- (5) 我愚人之心也哉! 沌沌兮. (王弼本 20章)
- (14) 猶兮若畏四鄰. (王弼本 15章)
- (15) 儼兮其若客. (王弼本 15章)
- (16) 渙兮若冰之將釋. (王弼本 15章)
- (17) 敦兮其若樸. (王弼本 15章)

- (18) 曠兮其若谷. (王弼本 15章)
 (19) 混兮其若濁. (王弼本 15章)
 (20) 悠兮其貴言. (王弼本 17章)

상기 예문들의 ‘兮’는 모두 文中 어기사로 ‘VP+兮+SP’ 혹은 ‘VP+兮+(其+)VP’ 구문에 속한다. 즉 文中에 쓰인 ‘乎’가 전부 ‘兮’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앞서 [표2]와 [표3]에서 살펴보았듯이 ‘兮’의 文中 사용이 중고중국어 시기에는 증가했고 어기사 ‘乎’의 文中 사용이 중고중국어 시기에는 감소했다는 사실과도 일맥상 통한다.²⁴⁾

VI. 나오며

필자는 판본비교법이 고대 중국어 현상 고찰에 유의미한 영역을 개척해 주리라 믿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행본 《老子》의 ‘兮’에 상응하는 글자가 각기 다른 판본인 郭店簡, 北大簡, 帛書乙, 敦煌本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한 바 ‘旃’, ‘呵’, ‘兮’, ‘𠄎’, ‘𠄎’ 등으로 각기 다르게 쓰이고 있음을, ‘𠄎’와 ‘𠄎’는 후대 판본에서 ‘兮’로 바뀌어 쓰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각 글자들의 관계에 대해 문자학적이고 음운학적인 분석을 시도, ‘呵’·‘旃’는 ‘兮’類 어기사임을, ‘𠄎’·‘𠄎’는 ‘乎’類 어기사임을 밝혀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각 《老子》 판본에서의 ‘兮’類 어기사와 ‘乎’類 어기사의 용법을 언어학적으로 고찰한 후 文中에 놓인 ‘乎’類 어기사가 중고중국어 시기에 전부 ‘兮’類 어기사로 바뀌었는데 이는 ‘兮’類 어기사와 ‘乎’類 어기사의 사용 빈도 변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앞서 II.1에서 필자는 避諱 현상과 서체를 근거로 들어 北大簡과 帛書乙이 동일한 시기에 속하는 필사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北大簡과 帛書乙은 모두 西漢 初期의 필사본인데 어째서 ‘乎’類와 ‘兮’類 관련한 어기사 사용 현황이 다른

24) 사실 ‘兮’는 韻文 자료에 주로 출현하는 어기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詩經》과 楚辭 관련 자료에 주로 쓰이는 것이다. ‘乎’에서 ‘兮’로 바뀐 《老子》의 상기 예문들도 韻文과 어느 정도는 관련 있는 용례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것일까? 필자는 西漢 시기가 상고중국어 시기와 중고중국어 시기를 잇는 과도기적 단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先秦 시기에 다양한 용법과 어기를 나타내던 일부 어기사들은 西漢 시기에 접어들면서 점진적인 쇠락의 길을 걷다가 東漢 시기가 되면 일부 어기사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거나 다른 기능을 새로이 얻게 된다. 일례로 필자는 박사논문에서 文中 어기사 ‘也’가 東漢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는 대신 文尾 어기사 ‘也’는 원래 없던 기능인 動態 용법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묘사한 바 있다. 또한 戰國 시기에 여러 문헌에서 그 용례가 보이던 文中 어기사인 ‘也者’와 文尾 어기사인 ‘已’는 西漢 시기가 되면 눈에 띄게 쇠락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는데 결국 東漢 이후에 두 어기사는 사라지게 되며 ‘已’의 경우 일부 기능을 ‘矣’가 대체하게 된다. 상고중국어의 어기사들은 축소와 쇠락, 대체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그 기능이 점차 통합되고 단순화되어간다.²⁵⁾ 西漢은 상고중국어 시기의 마지막 단계이다. 西漢 시기의 北大簡과 帛書乙에서의 ‘兮’類 어기사와 ‘乎’類 어기사의 사용 현황은 우리에게 중고중국어 시기로 넘어가기 이전의 과도기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향후 《老子》 외의 문헌으로 확대되어 甲骨文부터 중고중국어 시기까지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기능 변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兮’와 ‘乎’를 논의함에 있어 通時的으로 논하지 못하고 그 범위를 《老子》에 출현하는 ‘兮’와 ‘乎’로 제한을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본고의 한계이다.

【參考文獻】

1. 원문 자료 및 원문 주해본, 단행본

黃永武 主編《敦煌寶藏》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3-1986.

荊門市博物館 編《郭店楚墓竹簡》北京, 文物出版社, 1998.

馬承源 主編《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馬承源 主編《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馬承源 主編《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25) 관련 내용은 필자의 박사논문(曹銀晶《“也”“矣”“已”的功能及其演變》北京,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12) 참조.

- 馬承源 主編《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四)》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 馬承源 主編《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五)》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 馬承源 主編《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八)》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編《北京大學藏西漢竹書(貳)》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 高 明《帛書老子校注》北京, 中華書局, 1996.
- 王 弼《諸子集成(三)》北京, 中華書局, 1986.
- 河上公注《宋本老子道德經》[宋元閩刻精華]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8.
- 鄭良樹《老子新校》臺北, 臺灣學生書局, 1997.
- 朱大星《敦煌本〈老子〉研究》北京, 中華書局, 2007.
- 胡平生, 韓自強《阜陽漢簡詩經研究》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 楊伯峻《古漢語虛詞》北京, 中華書局, 1981.
- 劉笑敢《老子古今》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 徐富昌《簡帛典籍異文側探》臺北, 國家出版社, 2006.
- 李若暉《郭店竹書老子論考》濟南, 齊魯書社, 2004.
- 韓祿伯(Robert G. Henricks)《簡帛老子研究》北京, 學苑出版社, 2002.

2. 석박사논문 및 소논문

- 韓 巍〈西漢竹簡《老子》的文本特徵和學術價值〉: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編《北京大學藏西漢竹簡(貳)》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 曹銀晶《“也”“矣”“已”的功能及其演變》北京,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12.
- 曹銀晶〈談《論語》中的“也已矣”連用現象〉:《中國語言學集刊》第6卷 第2期, 2012.
- 孫斌來〈阜陽漢簡《詩經》的傳本及抄寫年代〉:《古籍整理研究學刊》1985年 第4期.
- 張振林〈先秦古文字材料中的語氣詞〉:《古文字研究》北京, 商務印書館 1982.
- 曹錦炎〈上海博物館藏戰國竹書《楚辭》〉:《文物》2010年 第2期.
- 金美鈴〈《老子》用韻考〉延世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6.
- 程 燕〈考古文獻《詩經》異文辨析〉安徽, 安徽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4.
- 陳士林〈楚辭“兮”字說〉:《民族語文》1992年 第4期.
- 柳玉宏〈說“通語”—揚雄《方言》術語商榷〉:《蘭州學刊》2007年 第5期.
- 支菊生〈也談《詩經》與楚辭中的“兮”字〉:《河北大學學報》1987年 第3期.

【中文提要】

出土文獻當中有一些文獻可以與今本對照，其中《老子》是屬於楚文化範疇的作品。從目前已發現的材料來看，出土文獻《老子》有郭店簡、帛書本、北大簡、敦煌本四類。值得注意的一點是，今本《老子》用‘兮’的地方，帛書乙作‘呵’和‘乎’、郭店簡作‘可’和‘𠄎’、北大簡作‘旖’和‘𠄎’等。爲什麼有這樣的不同？這幾個語氣詞到底有什麼關係？爲了解決這一問題，本文首先在《老子》版本對比的基礎上，描寫出‘兮’類語氣詞在《老子》各版本中的使用情況。其次，從文字學的角度對‘兮’、‘呵’、‘旖’和‘乎’、‘𠄎’、‘𠄎’的關係進行分析，從而指出前者爲‘兮’類語氣詞、後者爲‘乎’類語氣詞，並主張‘兮’爲通語、‘呵’爲楚方言的字。最後，從語言學的角度探討‘兮’類語氣詞和‘乎’類語氣詞所出現的語法環境、表達的語氣等問題，據此再次討論從‘乎’類語氣詞到‘兮’類語氣詞的現象。

【主題語】

《老子》，兮，乎， 출토문헌, 판본비교법

투고일: 2014. 1. 15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